

부활 제3주일

제1독서 : 사도 3, 13-15, 17-19

제2독서 : 1요한 2, 1-5

복 음 : 루가 24, 35-48

숲 정 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루가 24, 37)

강론

소리

예수님 사건

봄은 왔건만

리순성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오늘의 복음인 루가 24, 35-48을 염두에 두면서 예수님 사건을 집약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생하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해야 할 분이신지 말씀과 행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으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당신의 말과 행적뿐 아니라 죽음과 부활까지도, 그리고 부활 이후 당신의 말과 행적의 선포까지도 이미 성서에 예고된 것이라는 사실을 사건의 체험자들에게 이해력을 주시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예수님 사건을 보면 그 사건의 주도자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사건은 역시 예수님 사건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사건은 차츰 그 사건을 체험한 사람들의 사건으로 선포되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제1독서와 제2독서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독서인 사도 3, 13-15, 17, 19에서는 사건의 체험자들은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진실한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사건을 자신들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독서인 1요한 2, 1-5 역시 선포행위로서는 제1독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체험한 예수님 사건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방법만 다릅니다. 바로 이 제2독서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는 깨우침을 받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사건을 진실한 것으로 확신하고, 증언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인 것이지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사건을 선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방법상의 과제는 남습니다. 그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오늘의 제2독서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골로사이서 1장 28을 빌려 달리 말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권고하고 지혜를 다해 모든 사람을 가르치면서 그분을 알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이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꽃만 피고 개구리와 제비 나비를 볼 수 없다면 봄이랄 수가 없을 게다. 요즘 봄이 그렇다. 대동강(大洞江) 얼음이 풀리고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뛰쳐 나온다는 우수(雨水) 경칩(驚蟄)이 지난지 40~50일이 지났건만 이들 봄의 전령사(傳令使)를 볼 수가 없다. 먼 산에 잔설이 녹아 내리고 뺨을 스치는 바람결도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데도 봄같지 않은 것이이 때문이리라. 개나리가 활짝 꽃망울을 터뜨리고 목련이 아름다움을 뽐낸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구경하기 위해 상춘(賞春)인파가 몰리는 걸 보니 봄임에 틀림없는데 정작 봄을 알리는 개구리, 제비, 나비 등은 어디로 간 것일까.

학계에 따르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개구리는 참개구리를 비롯 무당개구리, 청개구리, 산개구리, 몸개구리 등 11종. 이중 북방산 개구리 등 4종은 멸종상태이고 나머지도 15년전에 비해 10분의 1로 줄었다고 한다. 제비도 마찬가지. 꼬리명주나비, 애호랑나비 등 봄과 함께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던 토종 나비들도 거의 사라져 볼 수가 없다는 것.

녹지훼손과 환경오염이 빚어낸 봄의 상실이다. 특히 개구리는 몸보신용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버려 씨를 말리고 있다. 이래도 좋은 것인지 생각해 보자. ☐

숲정이 산책



누가 채웠는지 알고있다!

2000년 대희년

전 주 교 구 설 정

부활 제3주일인 오늘은 전주교구 설립 60주년 기념일입니다. 한국최초의 자치교구인 전주교구가 설립되던 1937년 당시 경향잡지는 전주교구의 앞날을 축복하면서 전주교구에 거는 기대와 바람을 사실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때의 사실내용을 읽으며 오늘의 삶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 글을 씁니다. -편집부-

조선 천주교 역사상에 새로운 기원을 지어주는 본방인 교구의 탄생은 누구나 다 기대하던바인만큼 이번 전주교구의 설정은 모든 이에게 크나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첫자리에 빠리의방전교회는 놓지 않을 수 없으니 동회에서 조선천주교회를 담임한 이래 백여년 동안 이땅에 가톨릭의 기초를 세우기 위하여 동회의 주교, 신부들의 뜨거운 피가 흘렸고 기타의 선교사들은 치명은 아니하였을지라도 일찌기 미개한 조선에 나와와 조선을 위하여 살고, 조선을 위하여 일하고, 조선 땅에 자기의 백골을 묻어 치명에 가까운 생애를 보내었다. 이제 동회에서는 자기의 목적이 조선 땅 한편에도 이루어짐을 볼 때 어느 정도의 만족을 느낄 것이요, 장성한 자식을 분가시킬 때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전주교구는 빠리의방전교회의 이 은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요, 그로부터 받은 복음의 유산을 세말 중국까지 자기 지방에 발전시킬 것이다.

이미 여러해 전부터 본방인 교구의 설정을 준비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던 대구교회 당국에서도 이제 만족한 미소를 띄울 것이요, 로마전교성성과 특별히 극동의 교회발전을 크게 도모하시는 비오 11세 교황성하께서도 적지 않은 위로와 기쁨을 누리실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 치명복자들이 전주교구를 내려다 보시고 얼마나 용약하실 것이며, 조선에 가톨릭 교회를 본격적으로 세우기 위하여 좋은 마음으로 가성직계급을 조직하고 활동하던 선생들이 지금 다시 살아난다면 얼마나 감격찬 눈물을 흘릴 것인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전주교구의 책임이 극히 중한 것은 사실이니 조선에 있어서 빠리의방전교회의 장자인 만큼 동회의 기대하는 바와 교황성하의 기대하시는 바를 따라 견고한 기초 위에 건

전한 발전을 보여주어야 하리라. 이것은 조선 16만 남녀 교우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간절히 바라는 바이요, 가톨릭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목하는 바이다. 우리 조선 교우들의 명예를 한 몸에 지고 나선 전주교구의 앞길을 축복해 마지 않는 바이다.

로마 전교 성성과 특히 모교구인 대구교구에서 특별한 지도와 후원이 있을 것은 물론이지만 무엇보다도 전구교구의 장래 여부는 전주교구 자체에 달린 것이다. 전주 교구의 앞길을 위하여 우리가 가톨릭 기본 정신 이외에 다른 부탁할 것을 갖지 못하였나니, 모든 교우들은 본당신부에게 복종순명하고 모든 본당 신부들은 자기 감목에게 복종하고 세계 모든 감목들은 교황성하께 순명하는 이 절대 신임 절대 순명은 가톨릭의 기본정신이요, 가톨릭의 힘이요, 가톨릭의 광영이다. 전주 교구의 모든 교우와 모든 성직자들이 합심협력하여 자기 감목의 지도를 절대 신임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따르면 전주 교구의 찬란한 성적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니, 비록 인물 부족, 경제 곤란 등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복종 합심협력으로 그 결함을 기울 수 있으나, 신임 복종이 철저히 못하고 합심협력이 박약한 것은 아무리 결출한 인물이나 풍부한 경제력으로도 그 손해를 기울 길이 없는 것이다.

우리 치명 선조들이 자기 손으로 천주교를 수입하여 오고 자기 손으로 발전시켜 세계 천주교 역사상에 볼 수 없는 찬란한 기록을 남긴 것과 같이 조선에 방인 교구로서 처음으로 탄생한 전주교구는 자기 손으로 새로운 기원을 조선 천주교 역사상에 기록하고 있는 만큼 가톨릭 세계의 모든 민족 앞에 이것을 황금글자로 새겨 만대에 전하기를 우리 16만 교우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경향잡지 사설(1937년 5월호 제853호)-

효자이비인후과의원
 (레이저. 내시경수술)
 가톨릭공제조합 지정병원
 원 장 : 김 우 태
 육 인 회(세레나)
 남전주 전화국 건너편
 ☎ 223-7112

도미니꼬 수도회 성소모임

- 일시 : 4월 20일(목)
- 장소 : 광주 가톨릭센터
- 주제 : 진리
- 문의 : (02) 945-8431

고 려 보 석
 금·은·시계
 결혼 예물 전문
 (독주반지 제작전문)
 김 형 태(올리아노)
 박 태 연(마르타)
 전동성당 사거리 전북은행 앞
 ☎ 82-9005

연세가정의학과 의원
 (통증클리닉·물리치료)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원 장 : 전문의 이 장 춘(요섭)
 동서학동 교대 옆 무궁화주유소
 ☎ 232-3535~6

잠간

부르심에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어둠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 8, 12)

오는 4월 20일은 제34차 성소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길을 걷어가는 것 자체가 “성소(부르심)”이겠지만 특별히 온 생애를 주님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생활은 그 자체로 은총의 삶이며, 현실적으로도 보람과 결실의 삶입니다.

교구 성소국에서는 제34차 성소주일을 맞이하여 교구내 젊은이(중.고.대학생.일반)들과 함께 “가정안에서의 성소자 육성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장(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자 신앙의 바탕이 되는 못자리입니다. 교황님께서도 사제양성과 수도자 양성의 첫과제로 가정안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십니다. 가정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인성교육이 제대로 뿌리를 내릴 때 젊은이들의 삶에 대한 참된 가치관과 열정도 함께 성장되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를 살려 이날 행사에는 수도자, 성직자, 신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이분들이 가정안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오셨는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눌 시간과, 특별한 은총의 선물인 부르심에 응답한 신학생, 수도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소에 뜻이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부모님들을 이 행사에 초대하오니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997년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 장소 : 윤호관

교구 및 제 단체 소식

1. 성소주일 행사 : 4월 20일(일) 오전 10시, 윤호관
2. 사회교정사목 전주, 군산후원회 합동 야외미사 및 벚꽃놀이 : 4월 14일(월)
 - 출발-10시, 전동성당 • 미사-11시, 연지동성당
3. 종교음악 후원회 월례미사 : 매월 마지막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가톨릭센터 (7월, 12월 제외)
4. 천호 피정의 집 피정 : 4월 26일~27일, 주재-평화의 길, 지도-송열섭 신부
5. 가톨릭 사진가회 촬영모임 : 4월 20일(일) 오전 7시, 가톨릭센터
6. 성직자 아버지 모임 : 4월 15일(화), 전동성당
7. 성직자 모지 미사 : 4월 14일(월) 오전 10시 30분, 치명자산
8. 선택 4월 월모임 : 4월 26일(토) 오후 2시 30분, 가톨릭센터

요십이 (1235) 김병오



원 아 모 집

- 대상 : 0세~취학전
- 특징 : ① 몬테소리교육 ②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 운영 ③ 저소득층 자녀 혜택
- 차량운행
- 접수 : 팔복성모어린이집
- 원장 : 방재현 수녀 ☎ 212-1618

직원 초빙

- (과학 및 전산 조교)
- 구비서류 : 자필 이력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호적등본 각 1통
 - 자격 : 워드프로세서 자격 소지자
 - 제출처 : 성심여고 서무과 ☎ 86-5783, 85-0111
 - 제출기간 : 1997년 4월 18일(금) 오후 6시 * 가톨릭 신자 우대

LG에어콘

- 97년 신제품 에어컨 예약중!
- 설치는 지금, 대금은 5월부터

(주) 삼화공조
☎ 241-2000

서울의원

치질 레이저로 무통치료 및 무통수술

원장 : 이상재(베네딕도)
덕진광장 앞
☎ 75-0550

성심미술

유치부·초등부 취미반

이수정(마리아나)
여양 우미아파트 상가 2층
☎ (0653) 835-0058

남직원 모집

- 자격 : 고졸이상 병역필자, 부기 2급이상 P.C가능자, 천주교신자
-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기간 : 4월 18일까지
- 제출처 : 천주교 호성신용협동조합 ☎ 241-1750

서전주지구 본당소식

삼천동 주임신부 225-0397 사무실 225-0396 주임신부 오성기
F A X 222-4954 수녀원 226-3487 사목회장 심성택

◎ 굳건한 믿음과 부활의 삶을 살아갑시다!

1. 모임 안내 : ① 레지오 꾸리아-교중미사 후
② 제대회-16일(수) 전 10시
③ 울트라야-20일(주일) 교중미사 후
2. 바오로회 창립모임 : 교중미사 후, 45세 이하의 남성신자
3. 구역 미사 : 18일(금) 후 8시, 대우구역
4. 성소 주일 : 20일(주일), 청소년 축제(윤호관), 2차현금 있음
5. 미사 시간 : 20일(주일)부터 새벽미사는 5시 30분, 저녁미사는 7시 30분
6. 예비신자 교리 : 매주 주일-전 9시 30분, 수요일-후 8시
7. 성서 교실 : 매주 목요일 전 10시, 그룹성서 주임신부 지도
8. 저녁 기도 : 매주 화, 수, 목요일 저녁미사 후, 성모상 앞
9. 감사 : 나눔과 친교잔치에 모두 애쓰셨습니다.
10. 부속시설 신축헌금 : 금주 납입자 16명, 소계 1,530,000원
11. 금주 전례 : 해설-박영춘, 독서-강영호(요셉) 부부
봉헌-이재균(미카엘) 가정
12. 차주 전례 : 해설-박수환, 독서-이재균(미카엘) 부부
봉헌-박영근(요나)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1,613,390원 □ 교무금 : 1,112,000원
□ 2차 헌금 : 705,850원

화산동 주임신부 221-9843 사무실 221-9842 주임신부 이성우
F A X 221-9842 수녀원 225-3675 사목회장 서동호

◎ 주님,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저희에게 보여 주소서.

1. 금주 모임 : ① 요셉회, 안나회, 반석회, 자모회-나미사 후
② 점심판매-성전신축을 위한 식당 운영
③ 편집본과 모임-저녁미사 후
* 성전신축을 위한 특별헌금이 있음
2. 음악기초교실 : 15일(화) 후 7시 30분
3. 구역미사 : 18일(금)-남양황실, 25일(금)-거성그린 1반
4. 차주 모임 : ① 상지원 봉사-나미사 후
② 성소주일 행사-전 10시~후 4시, 윤호관
* 성소주일 2차 헌금 있음
5. 첫 영성체 교리 시간 : ① 기간-22일(화)~5월 31일(토)
매주 화, 수, 목, 금요일 후 4시 교리시작
② 어머니 모임-22일(화) 후 4시
6. 신축헌금 수입현황 : 268세대-5억 8천 9백 9만원
7. 청소 봉사 : 19일(토)-로사리오의 모후Pr.
8. 금주 전례 : 새벽-유희정, 낮-이영순, 저녁-정인자
9. 차주 전례 : 새벽-곽순옥, 낮-최정순, 저녁-홍정희
10. 축! 결혼 : 19일(토) 후 1시, 서울 잠실 성당
신랑-심완섭(마티아), 신부-정소현(엘리사벳)
* 당일 전 8시 30분 전주 종합경기장 정문 앞에서 차량 출발

□ 지난주 봉헌금 : 860,960원 □ 교무금 : 1,322,000원

서신동 주임신부 74-9261 사무실 74-9260 주임신부 오현택
F A X 74-9260 수녀원 74-6262 사목회장 유준웅

◎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완전 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요한 1서 2, 5)

◎ 오늘 : 조춘동성당 신축 2차헌금, 사제양성후원회비 납부일

1. 금주 모임 : 울트라야-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2. 주간 모임 : ① 성령기도회-15일(화) 후 8시, 유아실
② M.E모임-16일(수) 후 8시, 유아실
3. 차주 모임 : 꾸리아-공식미사 후, 지하성당
* 차주-성소주일 2차헌금, 교무금 납부일
4. 첫 영성체 교리 : 5월 6일~31일(화~토요일)
* 교리신청-26일까지, 박 루시아 수녀님
5. 중·고생 가정방문 : 매주 후 2시~5시, 수녀님(교리교사)
13일(일)-19(현대)구역, 20일(일)-18(대명, 남양)구역
15(쌍용)구역, 27일(일)-17(제일, 비사벌)구역
6. 전입가정 환영 : 임채분(바드리스오) T. 75-8530, 현대A 109/1003
김효숙(가타리나) T. 252-5539, 현대A 105/903
유미자(아가다) T. 74-8893, 성원A 105/1106
정은숙(테레사) T. 251-3878, 광진A 102/310
황영자(데보라) T. 254-5376, 현대A 109/1202
이정기(루스) T. 72-5631, 영창A 1203
7. 독서 : 금주(새벽)-① 황대진 ② 오정순, 차주-① 광창술 ② 김화임
금주(공식)-① 남철우 ② 임영순, 차주-① 김옥기 ② 최유진
8. 미사안내 : 금주-겸손하신 모후Pr., 차주-영원도움의 모후Pr.

□ 지난주 봉헌금 : 1,500,430원 □ 교무금 : 1,921,000원
□ 페루 2차헌금 : 714,100원

용머리 주임신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현유복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이규세

◎ 새 성전 신축위한 목주기도 봉헌 : 소계- 5,463만
누계-366,335만

1. 모임 : ① 제대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 전례자 모임-17일(목) 저녁미사 후
2. 첫 영성체 교리 : 매주 화, 수, 목요일 후 4시 30분, 성당
3. 사순 돼지 저금통 :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 구역반장님 회수바랍니다.
4. 2차 신축헌금 : 전신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십시오.
5. 교리교사들께 감사 : 부활달걀 판매 이익금 10만원을 신축기금으로 봉헌
6. 본당신부님 성전 신축기금 모금을 위한 동양화 전시회 : 25일~5월 1일, 예술회관
7. 금주 전례 : 해설-김미숙, 독서-① 하진호 ② 강경자
8. 차주 전례 : 해설-박태승, 독서-① 이종근 ② 김형진
9. 청소 봉사 : 5구역 4반, 5반

□ 지난주 봉헌금 : 902,800원 □ 교무금 : 2,072,000원

호지동 주임신부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서정현
보좌신부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권원성
F A X 223-3821 사목회장 이병선

◎ 금주 성서통독 : 골로사서

◎ 다음주는 성소주일 : 2차헌금 실시합니다.

1. 금주 모임 : ① 안나, 요셉회-13일(일) 9시미사 후 ② 자모회-15일(화) 전 11시 ③ 사회복지분과회의-16일(수) 전 10시 ④ 청소년분과회의-18일(금) 후 8시 ⑤ 예루살렘회-19일(토) 전 11시
2. 차주 모임 : ① 울트라야-20일(일) 저녁미사 후
② 사목회-25일(금) 후 8시 ③ 꼬미시움-26일(토) 후 3시
3. 전입교우 가정방문 : 17일(목) 후 2시부터
* 거성A, 거성국민, 거성소라, 황재, 우체국주변, 풍년연립
4. 외딴교우 및 냉담자를 위한 기도모임 : 매주 목요일 7시미사 후
5. 외딴교우 가족 초청의 밤 : 18일(금) 후 7시 30분
*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구역미사 : 15일(화)-쌍용3단지 305/502호
7. “북한동포와 페루 원주민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잔치” : 26~27일, 본당
*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티켓은 각 레지오별로 사무실에서 구입바람 8. 구역장 임시모임 : 15일(화) 저녁미사 후
9. 전입가정 환영 : 임성균(세실리아)-세경A 1-302 T. 223-8075
정오봉(테레사)-광진공작A 1-108 T. 226-5612
10. 다음주 미사 안내 및 차(茶)봉사 : 효자주례
11. 발집 헌금 : 반석윤(마태오)-일집만, 김승식(요한금구)-일집오만
김경준(글라리아)-일집만, 레오나-오만, 박마리아-일집만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 1,360,280원 □ 교무금 : 1,992,000원
□ 페루성교 2차헌금 : 916,700원

호지우전 주임신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보좌신부 226-0443 수녀원 223-0715 보좌신부 김규호
F A X 226-1044 사목회장 서동호

◎ 성전 신축을 위한 목주 봉헌기도 : 소계-13,070만, 누계-689,777만

1. 금주 모임 : ① 반석회-16일(수) 후 7시 ② 구역장회, 제대회-18일(금) 10시미사 후 2. 애령회 가입과 회비를 접수합니다.
3. 울트라야회원 단합대회 : 전 8시 출발, 지리산 청학동
4. 저녁미사 시간 변경 : 15일(화)부터 후 7시 30분으로 변경
5. 첫 영성체 교리 : 대상-초등학교 3~6학년, 신청-본당 사무실
6. 여사무원 구함 : 제출서류이러서, 세계증명서 * 19일(토)까지 접수바람
7. 2차 신축헌금 신청자 : 익명 200만, 유명화 200만, 김은기 200만, 익명 200만, 유영균 150만, 이규홍 100만, 허쌍원 100만, 김순덕 100만, 박동섭 100만, 김영미 100만, 김정은 100만, 이계완 100만, 신성래 70만, 김화섭 50만, 이선자 50만, 최영훈 40만, 이문영 30만, 이정현 30만, 이준석 30만, 박영애 30만, 김경철 30만, 김순숙 20만, 임남래 20만, 윤덕순 30만, 이봉우 300만, 김상권 300만, 장대기 300만, 최봉춘 200만, 전형섭 200만, 김춘성 100만, 나혜경 100만, 백진표 100만, 이복희 50만, 조경희 30만 소계-3천6백7십만원, 누계-4억9천2십6만원
8. 차주 : 성소주일 2차헌금 실시, 반희장 준비모임
9. 금주 전례 : 해설-이인숙, 독서-① 권호상 ② 허선영
봉헌 안내-최규화, 이준순 부부
10. 차주 전례 : 해설-이종표, 독서-① 민병환 ② 이기순
봉헌 안내-유영균, 강성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1,467,270원 □ 교무금 : 2,443,000원
□ 2차 헌금 : 830,000원